

한중경제포럼

제15-03호 2015년 06월 11일

‘중국제조 2025’ 추진배경과 중점분야

2015년 제3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중국제조 2025’ 추진배경과 중점분야
2. 일 시 : 2015. 5. 14(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 공업신식부 산업정책사 펑페이(冯飞) 사장

1. ‘중국제조 2025’ 제정 배경

가.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점차 둔화

- 중국 경제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을 가장 크게 견인하던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의 둔화가 두드러짐.
- 2014년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8.3%로 서비스업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음.
- 2015년 1분기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GDP 성장률(7%)보다 낮은 6.4%로 나타나, 처음으로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중국 공업 내부구조의 변화

- 현재 중국 공업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신산업분야)를 육성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과거 중국의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견인하던 전통적인 산업(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등 중공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대폭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적지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한편, 최근 첨단 제조업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2015년 1분기에 11.8%)하고 있으나, 여전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견인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역부족임.

나. 비교우위의 변화

□ 전통적인 제조업의 저원가 비교우위가 현저히 감소

- 과거 제조업의 저원가 비교우위가 현저히 감소한 반면, 새로운 비교우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임.
- 중국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나 최근 국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중압력에 직면함.
 - 중국보다 기술, 브랜드 우위가 현저히 높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중국보다 제조원가가 낮은 개도국으로부터 받는 가격경쟁 압력도 증가하고 있음.

다. 환경보호 필요성 증가

□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공업 생산에서 배출

- 중국 공업의 에너지 소모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오염물질 대부분이 공업 생산에서 배출됨.
- 제조업의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임.

라. 새로운 글로벌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

□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구체적인 실현

- 정보, 네트워크기술과 제조업의 결합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핵심내용이라는 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함.
- 즉 인터넷+제조업이 새로운 공업혁명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생산방식, 산업 구조 나아가서 전 세계 경쟁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독일의 ‘공업 4.0’과 미국의 제조업관련 정책 모두 인터넷과 제조업을 결합한 정책으로, 중국정부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업과 정보기술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독일정부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 ‘공업 4.0’을 발표했으며, 같은해 미국정부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

2. ‘중국제조 2025’ 목표 및 단계별 전략

가. ‘중국제조 2025’의 목표

□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전환

- 중국의 제조업 증가율은 2010년부터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를 차지, 제조업 대국으로 부상함.
 - 총량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인당 규모는 미국은 물론 한국보다도 낮은 수준임.

나.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

□ ‘중국제조 2025’은 중국 공업제품의 품질과 생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3단계 전략 목표를 제시함.

- 1단계(2015년~2025년): 세계 제조업 강국수준에 진입
 - 2020년까지 제조업 대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2025년까지 혁신능력 및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제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발전
- 2단계(2025년~2035년): 세계 제조업 강국 중에서도 중등수준으로 제고
 - 혁신능력과 전반적인 제조업 경쟁력의 강화하고, 비교우위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통해 제조업 수준을 제고
- 3단계(2035년~2045년): 신 중국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제조업 강국 중에서 선두적 지위 확보

□ 추진전략

- 인터넷 등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결합을 추진하면서, 중국특색의 신형 공업화 정책을 실시함.
- 제조업의 혁신발전을 촉진하고 질과 효율향상을 중점으로 하여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추진함.
- 스마트제조를 중점방향으로 추진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핵심기술설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
- 공업기초 능력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통합기술을 향상시키며, 다차원의 인력 시스템을 완비함.
- 외부에서 ‘중국제조 2025’는 중국버전의 ‘공업 4.0’이라고 평가함.
 - ‘중국제조 2025’에 인터넷+제조업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범위가 ‘공업 4.0’ 보다 훨씬 포괄적임.
 - ‘중국제조 2025’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작업장 등 스마트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함.

□ 기존 산업발전 계획 및 전략과의 차별점

- ‘중국제조 2025’는 일반적인 산업발전 계획이 아니라 국내외 경제사회 발전, 산업변혁의 발전흐름에 따라 제정한 장기적인 제조업 발전 전략계획임.
- 전통제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신기술 혁명을 통해 제조업의 첨단 발전을 실현할 것임.
- ‘중국제조 2025’은 ‘13차 5개년’이나 ‘14차 5개년’ 등과 같은 계획으로 간주하지 않고, ‘공업 4.0’과 유사한 기술적인 명칭을 붙인 이유는 기존 계획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
 - ‘기존 정책보다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이며, 신기술 혁명에 대한 대응조치가 강화됨.

3. ‘중국제조 2025’ 9대 임무, 10대 중점분야, 5대 중대 프로젝트

가. 9대 임무

(1) 제조업의 혁신능력 제고

- 현재 중국 제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혁신 메커니즘 구축과 완비할 것임.
 - 미국의 ‘첨단제조업 전략’(10년간 45개 혁신네트워크를 구축 목표 제시)은 중국정부에 다소 시

사점을 가져다주었으며, 중국 역시 일부 중점분야에 혁신센터를 구축할 예정임.

(2) 제조업의 기초역량 강화

- 중국은 제조업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고, 기초역량이 부족하므로 기초역량(기초 원자재, 기초 부품, 기초 공법, 기초 기술)의 강화가 필요함.

(3) 제품의 품질 및 브랜드 구축 강화

- 현재 중국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제조업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와 유명 기업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한국기업과 비교 시 브랜드 구축에 많이 뒤떨어진 상황임.
 - 중국은 제조능력은 뛰어나지만, 중국 자체 브랜드가 없고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아 글로벌 분업 시스템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제조업의 비교우위변화로 인해 OEM가공 방식도 더 이상 지속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4) 녹색제조를 전면적으로 추진

- 제조업의 중점분야에 있어 친환경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추진해야 함.
- 선진화된 에너지 절약 기술, 설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제조업의 환경오염관리 등 측면에 대한 추진을 강화해야 함.

(5) 중점분야의 획기적인 발전 추진

- 10대 중점분야인 IT산업, 고정밀 수지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진 철도 교통설비,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장비, 신재료,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기, 농기계장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6)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최적화 추진

- 낙후생산을 도태시키고,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해야 함.

- 중국은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알루미늄, 조선 등 5개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가 극심함.
- 2012년부터 중국정부는 낙후생산을 도태시키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생산과잉 문제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지역 간의 산업이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적 공간분포의 조정함.
- 대기업을 육성하고, 첨단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구조를 조정함.

(7) 서비스형 제조와 생산성 서비스업의 적극 발전

- 인터넷응용이 활성화되면서 제조업의 서비스 특징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경영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타남.
- 예컨대 생명주기 서비스(life cycle service), O2O 시장, 원격진단(remote diagnosis)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경영방식이 나타남.

(8) 중국 제조업의 국제화 발전수준 제고

- 2014년 중국의 해외투자액은 외자이용액을 초과하여 최초로 자본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은 국제자원과 국제시장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9)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적인 결합 추진

- 인터넷과 제조업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 제조 인프라를 구축함.
- 리커창 총리가 올해 정부업무보고회의에서 제출한 ‘인터넷+’ 행동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터넷+제조업임.

나. 10대 중점분야

(1)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IT기술)

- 고성능 집적회로의 경쟁력 향상 발전을 통해 집적회로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집적회로의 사용을 확대함.
- 중국의 집적회로는 해외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해 정보안보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임.
 - 중국의 연간 집적회로 수입액은 약 2,200억 달러이며, 단일제품으로는 수입규모가 가장 큼.

- 2014년에 국무원은 집적회로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약 1,000억 위안의 집적회로 발전펀드를 통해 동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2)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와 로봇

-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기초 생산설비, 특수 로봇(공업용, 서비스용 등) 개발을 확대함.
 - 2014년 중국의 로봇 시장규모는 3.7만대로 전 세계 로봇 수요의 21%를 차지함.
 - 로봇 수량으로 볼 때, 중국산 로봇은 25% 내외지만 가치로 환산시 5% 내외에 불과함.
 - 중국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대체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3) 항공우주장비

- 차세대 탐제로켓, 중형 발사용 로켓 등을 발전시키고, 우주기술 전환과 공간 기술응용을 추진하는 등 항공우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것임.
 - 중국은 150대의 간선 항공기를 연구개발하고 있음.
 - 항공기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 엔진 등 분야에서도 발전이 필요함.

(4) 해양공정 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 심해탐측, 자원개발이용, 해상작업 장비 및 핵심 시스템과 전용설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 심해정거장(deep-sea space station), 대형 부유식 구조물의 개발과 프로젝트를 추진함.
- 해양공정 장비 종합테스트, 검사측정, 평가능력을 형성하고 해양 개발이용수준을 향상시킴.
- 호화 유람선 디자인 건설기술을 추진하고 액화 천연가스 선박 등 고기술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
- 중국은 첨단기술 선박분야에서 조선대국이자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

(5) 선진 철도 교통설비

- 신재료, 신기술, 신공법을 발전시켜 시스템적인 안전보장,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네트워크화 기술을 추진함.
- 선진적이고 신뢰적인 제품과 경량화, 모듈화, 계통화 제품을 연구개발함.
- 차세대 녹색 스마트, 고속 철도교통 장비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전 세계에서 선진적인 현대화

철도교통 산업 시스템을 구축함.

(6)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자동차

- 2014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은 8.4만대이며, 이는 과거 몇 년간 누적 규모의 2배에 달한 수준임.
- 2014년은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의 원년(元年)으로 평가되지만, 전체 자동차 생산량(2014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 2,370만대)에서 차지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비중은 여전히 낮음.
-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자동차분야에서 기술 R&D를 강화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함.

(7) 전력장비

- 대형 고효율 청정 화력발전장비의 산업화와 시범응용을 추진하고 특대용량의 수력발전기, 원전 장비, 중형 가스터빈의 제조수준을 향상시킴.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장비, 선진 에너지저장 장치, 스마트 전력망의 송·변전 등 설비를 발전 시킴.
- 고효율 전력전자부품, 고온 초전도 재료 등 핵심부품과 재료의 제조 및 응용기술을 발전시켜 산업화능력을 형성함.

(8) 신재료

- 특수 금속기능 재료, 고성능 구조재료, 고성능 고분자재료, 특수 무기비금속 재료, 선진 복합재료를 발전시킴.
- 신재료 관련 핵심기술과 장비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기초연구와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산업화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함.
- 군민 공동용 특수 신재료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통재료에 대한 신재료의 영향을 유의하며 기초재료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9)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 중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 양로 등 관련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고 관련 제품과 기기의 시장수요가 점점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대 질병에 대한 화학약품, 중약, 새로운 바이오기술 약품 등을 발전시킴.

- 의료기기의 혁신능력과 산업화 수준을 향상시킴.
- 바이오 3D 프린트 기술을 발전시킴.

(10) 농기계장비

- 중점적으로 곡식, 목화, 기름, 사탕 등 주요 식량과 전략적 경제작물의 육묘, 경작, 작농, 수확, 운송, 저장 등 주요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선진 농기계장비를 발전시킴.
- 대형 트럭 및 복합식 작업기계, 대형 고효율 수확기 첨단 농업장비와 핵심부품의 발전을 빠르게 추진함.
- 농기계장비의 정보수집, 스마트 의사결정과 정확한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생산에 대응한 정보화 솔루션의 형성을 추진함.

다. 5대 중대 프로젝트

□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 미국의 제조업 네트워크 구축을 벤치마킹하여 중국은 제조업 혁신센터(공업기술 연구단지)를 구축할 예정임.
- 중점산업의 구조조정과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 제조,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AM), 신재료, 바이오의약 등 분야의 혁신발전의 공동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련의 제조업 혁신센터(공업기술 연구단지)를 설립하여 산업기초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성과물의 산업화, 인력교육 등 업무를 추진함.
- 제조업 혁신센터는 산업 기초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연구개발 성과물의 산업화, 인재개발 등을 수행하며, 2020년까지 약 15개, 2025년까지 약 40개 건설할 예정임.

□ 스마트 제조업 육성

- 공업신식부는 정보화와 산업화 융합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업을 육성할 것임.
- 중점제조분야의 핵심단계를 둘러싸고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장비가 융합된 혁신과 프로젝트 응용을 추진함.
- 정산학연(政産學研)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 제품과 자체통제 가능한 스마트장비를 개발하고 산업화를 실현함.
- 핵심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생산인력의 로봇대체, 생산과정에서 스마트 최적화통제, 공급사슬

의 최적화를 중점으로 중점분야의 스마트 공장/작업장을 건설함.

- 기초여건이 좋고 수요가 큰 중점지역, 산업, 기업에 대해 스마트 장비와 제품, 스마트 서비스 등 시범/응용보급 등을 추진함.
- 스마트 제조표준 시스템과 정보안보 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네트워크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함.
- 2020년까지 제조업 중점분야의 스마트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키고, 시범프로젝트의 운영비용을 30% 절감, 제품 생산주기를 30% 단축, 불량품 발생율을 30% 감소할 예정임.
- 2025년까지 제조업 중점분야는 전면적으로 스마트화를 실현하고 시범프로젝트의 운영비용을 50% 절감, 제품 생산주기를 50% 단축, 불량품 발생율을 50% 감소할 예정임.

□ 공업 기초역량 (원자재, 부품, 공법, 기술) 강화

- 시범응용을 추진하고 장려,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핵심 기초부품(원자재), 선진 기초공법, 핵심 기초재료의 최초 혹은 다분야의 응용을 지원함.
- 중대 프로젝트와 중점 장비의 핵심기술과 제품수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우위기업의 정산학연(政産學研)협력을 지원하고 핵심 기초원료, 기초부품의 공정화, 산업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함.
- 플랫폼 지원을 강화하고 '4개 기초' 연구센터를 조직 건설하며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하여 중점 산업기술 기초 시스템을 완비함.
- 2020년까지 핵심 기초부품, 핵심 기초재료의 자체 보급율을 40%로 제고하고, 항공우주장비, 통신장비, 송·변전 설비, 공작기계, 철도교통 설비, 가정용 전기제품 등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원자재)와 핵심 기초재료의 선진 제조공법을 보급시킴.
- 2025년까지 핵심 기초부품, 핵심 기초재료의 자체 보급율을 70%로 제고하고, 산업기술 기초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을 완비하고 산업 혁신발전 구조를 형성함.

□ 녹색제조

- 전통제조업의 에너지 소모율을 향상시키고 청정제조, 수자원 절약과 오염관리, 순환이용 등 전문 기술개조를 추진하며,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자원 종합이용, 재(再)제조, 저탄소기술 산업화 시범을 추진함.
- 중점지역, 유역(流域), 산업의 청정제조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기, 물, 토양오염의 원천을 차단시킴.
- 녹색제품, 녹색공장, 녹색단지, 녹색기업 표준 시스템을 제정하고 녹색평가를 진행함.
- 2020년까지 친환경 제조 시범공장 1,000개와 시범지구 100개를 건설 운영하여 중점제조업 업종

의 오염배출량을 20% 감축시킴.

- 2025년까지 제조업의 녹색성장과 주요 제품의 에너지소비가 세계 선진수준의 친환경 제조 시스템을 구축함.

□ 첨단장비의 혁신

- 공업용 로봇, 3D 프린트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10대 중점분야와 5대 중대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장비산업 위주로 혁신을 추진함.
 - 대형 항공기, 항공 엔진 및 가스 터빈, 민간용 우주, 스마트 녹색열차,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해양공정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스마트 전력망 관련 설비,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원전장비, 고급 의료설비 등 일련의 혁신과 산업화 전문 프로젝트, 중대 프로젝트 분야에 혁신을 추진함.
- 대표적이고 견인성이 강한 중점 제품과 중대 장비를 개발하고 자체 디자인 수준과 시스템 통합 능력을 향상시키며, 핵심기술과 공정화, 산업화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함.
- 시범응용을 추진하고 혁신발전 능력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경쟁우위를 확보함.
- 2020년까지 해당분야에 지속적인 R&D와 기술응용을 실현하고, 2025년까지 지적재산권 보유비중 확대,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 하락 및 기초 능력을 뚜렷이 강화하여 중요분야의 첨단장비 수준을 국제 선진수준으로 제고함.

<질의·응답>

질문 1

제조업 분야에서 한중간 협력여지가 크다고 하셨는데 중점분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 몇 년 전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한국의 대기업이 중국의 지방정부와 협력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정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양국간 협력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또 생기지 않을 것인가?

답변 1

한중간 협력에 있어 우선 양국의 산업특징과 상호보완성을 살펴봐야 함. 협력의 토대는 바로 윈윈을 이루는 것인데 상호보완 관계를 가져야만 윈윈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현황에 있어 혁신 특징이 두드러짐. 한국은 비록 원천특허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못한 수준이지만, 연구 성과물의 산업전환 능력이 뛰어나.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혁신능력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음. 중국기업은 이러한 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국사이에 서로 보완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아울러 한국은 많은 산업에서 우위와 특징이 두드러짐. 예컨대 ‘중국제조 2025’의 핵심내용인 인터넷 정보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에 있어 한국은 ICT,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막강한 우위와 경쟁력을 확보하였음. 한국은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액션플랜을 제정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 인터넷+제조업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사물인터넷임.

한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발달해 있으며, 특히 자동차용 전지의 산업화 능력이 탁월함.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소개에 따르면 가장 우수한 자동차용 전지제품은 바로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임. 중국은 자동차용 전지산업에서 외자에 대해 지분비율 요구가 있지만, 4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통해 동 규제사항을 취소하였음. 또한 한국은 신재료 분야에서도 우위가 있음. 그 외에도 한중간 보완관계를 이룬 산업이 많음.

한-중간 스마트도시 건설 협력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과 관련해서 스마트도시는 많은 분야와 관련되는 복잡하고 시스템적인 업무임. 당시 스마트도시를 추진에 있어서 중국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부부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부서가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음.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건설에 있어 한-중간 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발생했을 것임. 실제로 스마트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극히 적음.

질문 2

10개 중점육성 분야 중 여러 산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10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세금 관련 우대정책 등 일련의 육성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됨. 동 10개 중점분야를 보면 앞에 ‘고급’, ‘신에너지’, ‘첨단’ 등 수식어가 붙어있는데 이는 기업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함.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만 기업이 그 기준에 맞춰서 육성분야를 더 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답변 2

‘중국제조 2025’ 계획의 전체 구조는 사실상 ‘1+x’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을 말함. ‘x’는 10개 중점분야 및 10개 관련 계획을 의미함. 현재 10개 중점분야의 계획 관련 업무는 추진 중에 있음. 2011년에 중국은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한적 있는데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야 7대 신흥산업의 24개 중점방향이 제시되었음.

이번 10개 중점분야에 언급된 산업은 모두 첨단산업이나 새로운 분야에 속하므로,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해서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동 위원회에서 ‘중국제조 2025’ 관련 자료를 발표하여 기업에게 관련 산업의 발전전망, 기술전망 등을 제시할 예정임.

질문 3

중국 제조업은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 있음. 즉 중국 제조업은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노동집약형 산업이 동남아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음. 또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제조업이 회복됨에 따라 큰 이점으로 압력을 받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3

이와 관련해서 동남아 국가에 진출한 중국기업에 대해 조사를 추진한 적 있음. 해당 기업에 따르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동남아 국가의 노동비용은 중국보다 현저하게 저렴하지만, ① 관련 생산능력의 부족(예컨대 의류제조업체의 경우 단추, 지퍼 등 관련 제품의 생산능력과 나염기술 부족) ② 교통, 전자통신 등 인프라시설의 부족 등 어려움이 존재함. 물론 외자기업의 투자 증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산업체인도 점차 개선되겠지만, 현재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고 개선이 된다고 해도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기업은 노동비용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도 고려해야 함. 중국은 산업체인이 길고 인프라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해외수출량이 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질문 4

‘중국제조 2025’는 과거 산업육성 정책과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가? 또한 내년에 ‘13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할 것인데 ‘중국제조 2025’와 어떤 관계인가? ‘중국제조 2025’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가?

답변 4

‘중국제조 2025’와 기존의 산업육성 정책과 차별점이라면,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분야의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 산업별 정책보다 더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었음. 아울러 제조업의 첨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터넷+제조업’을 핵심으로 함.

‘13차 5개년’과의 관계라면, 공업분야의 ‘13차 5개년’ 계획내용은 거의 기본적으로 ‘중국제조 2025’의 5개년 발전목표에 따라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 즉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경제, 사회의 단계적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공업분야의 경우 별도로 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중국제조 2025’의 5개년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정부예산은 R&D나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등에 많이 투입되지만, 산업화에 있어서는 기업과 사회투자를 위주로 함. 앞서 소개한 직접회로와 관련된 1,000억 위안의 펀드는 사실상 정부-민간 합동 투자(PPP)방식을 취할 것이며, 정부자금 비중이 낮고 대부분 사회자금 위주로 금융펀드회사에서 운영할 것임. 이는 산업발전 자금의 혁신적 방법이며,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펀드방식을 통해 더 많은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됨.